



준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한 외래강사의 東大 비판

“이거 원, 대학이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최근 동국대에서 강의 중인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하소연으로 시작된 통화는 시종일관 불평불만 일색이었다. 이유는 동국대가 실시중인 강의포드폴리오와 강의평가 때문.

강의포드폴리오라는 교수의 자기평가다. 동국대는 ‘학사행정 연구시스템(U-Drims)’에 교·강사가 자기평가와 함께 출석부를 비롯한 강좌 관련 자료를 전산입력하게 해놨다.

지인은 “객관화와 계량화를 시도한다 해도 대학에서 과제 및 질문과 모범답안, 채점기준표, 상·중·하 등급별 답안까지 각각 따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의포드폴리오를 입력한 다수의 동국대 교·강사들도 “실효성 없는 전산행정적 표본”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의평가는 수강생이 교·강사를 평가하는 제도다. 2007년 제도시행 초기에는 학생의 평가에 따라 매 학기말 공개된 등급이 해당 교·강사의 강좌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했다. 학교 측은 “강의평가 공개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지인은 “학교에서 강의평가에 대해 2년간 2회 이상 하위평

가를 받은 강사는 강의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들었다”며 “취지야 공감한다고는 해도 과제를 부과해도 학생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문제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지 서비스아카데미는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영교 총장은 강의평가공개에 대해 “교수평가 공개는 교수와 협의대상이다. 고객(학생)에게 상품(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왜 공급자(교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냐”고 말했다. 강의평가 등을 통해 학생·교수간 소통은 유도하면서도 정작 CEO를 자임하는 총장(대니언) 자신은 교수(스텝)와 소통할 필요성을 외면한 멘트가 아닐 수 없다.

지나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가 다시 주목받는 요즘이다.

교·강사에 강의평가와 강의포드폴리오 작성을 강요하면서, 오 총장 자신은 교수회가 실시한 총장평가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대학경영포드폴리오를 쓰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스텝에 일방적인 과부하를 주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저급한 매니지먼트라는 목소리가 높다.

명예회복 국회가 ‘발목’

10·27법난심의위 교육관 예산 1500억 요청

현정사상 초유의 국회 여야 동시 점거로 민생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훼손당한 불교계 명예회복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7월 1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으로 정부에 1500억 원을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 전쟁기념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직위원 총 11명 중 9명(위원장 원학 스님, 정수만 국방부 차관, 김대기 문체부 차관, 사회부장 세영 스님, 삼보 스님, 윤원호, 허남우, 조남진, 이명익)가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명예회복에 대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2008년 6월 29일 시행되는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동년 9월 9일야야 시행령이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구성도 동년 12월야야 이뤄졌다. 법률제정 1년이 지난 2009년 3월 국방부와 연계한 지원단이 구성돼 비로소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위 활동기한이 2010년 6월까지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 현행법 상 당시 피해 스님에게 ‘보상금’이 아닌 ‘의뢰비 지원’만을 명시한 부분도 개정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심의위 활동기한 연장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파행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심의위는 교육관에 관해 올해 8월 까지 기본설계조사 후 2010년 6월 까지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 2013년 6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속도 낙산사 등 부지기준의사를 밝혀 후보지를 기준으로 건립계획을 짜 예산 계획안을 국방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단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교육관 건립 입지에 대한 중도 의견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당시 단장 노태우)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 5731곳을 수색한 사건이다.

노덕현 기자

“사찰 경내지 자연공원 해제”

조계종 촉구법회·서명운동 벌여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법회가 전국 조계종 사찰에서 동시에 열리고,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7월 22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봉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조하루 법회가 어려운 사찰은 7월 26일 일요일법회 등 사찰 형편에 따라 동시법회를 진행한다.

법회는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여덟 번의 타종과 함께 시작된다. 법문도 자연공원에서 사찰 경내지 해제의 당위성과 본말사주지 결의사항에 따른 사찰별 실천 활동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서명운동을 펼친다. 특히 서울 조계사 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법석에 올라 사찰 경내지의 자연

공원 해제에 대한 법문을 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각 사찰 별로 30~100부 배부된 서명용지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서명운동은 8월 동시법회 다음날인 8월 21일까지로 8월 28일까지 총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서명운동은 9월 1~25일 펼쳐지며, 10월 2일까지 총무원에 취합될 예정이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전국사찰 동시법회와 서명운동 전 개는 7·29년말사주지결의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며 “이미 각 사찰에 게시된 현수막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법률고도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7월 14일 현재까지 종단의 사찰경내지 자연공원 해제 요구에 관한 정부측의 공식제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종교평화 학술세미나’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9월 25일

지난 여름, 종교평화 종식을 외쳤던 8·27법난불교대회 열기를 잇는 학술세미나가 개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종교와 정치권력’과 ‘불교와 정치권력’의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주제 ‘종교와 정치권력-역사적 전개와 교훈’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 서구 등에서의 종교와 정치권력의 갈등을 조망한다.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창의 한신대 연구교수와 장식만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제2주제 ‘불교와 정치권력-최근 100년간 한국에서의 전개와 문제점’에서는 근현대 한국사를 중심으로 종교의 정치세력화와 불교차별 과정 등을 조망한다.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를 비롯해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김광식 부천대 교수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02)2011-1816 조동섭 기자

조계종 임시총회

8월 10~14일 개정

조계종 제181차 임시 중앙총회가 8월 10~14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장단 및 상임본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중앙총회에서는 제180차 회의에서 이월된 증빙개정안을 비롯해 3월 31일부로 임기만료된 교육원장 선출권,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선출권, 동국대 감사 추천권, 덕성종립 수석사 방장 추대의 건, 2008년도 중앙종무기금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교화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회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에 ‘사랑의 모포’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캄보디아 4개 교육 사업장에 ‘사랑의 모포’를 지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8년 ‘사랑의 모포 보내기’ 캠페인으로 총 2945

만원을 모금해 2008년 총 42000장의 모포를 전달한 데 이어, 2009년에는 7월 1일까지 3개 마을 464구구에 2300장의 모포를 전달했다. (02)455-9352 노덕현 기자



사랑의 모포를 전달하는 지구촌공생회 현장활동가.

50선지식과 함께하는 화엄산림 지장산림법회 및 조계사 2차 343일 조상천도법회

조계사에서 343일 원로대덕 큰스님 50분을 모시고 화엄경과 지장경을 공부하며, 선방부모에 대한 49재와 가족을 위한 구병시식을 각각 7회에 걸쳐서 봉행합니다. 이번 조계사 조상천도법회에 동참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조상영가와 유주무주고혼들이 극락왕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금) (음운 5.25) ~ 2010년 6월 24일 (음 5.13), 1~6재 매주 목요일 10시 (대회 49재 9시)

입재 07월 17일(음 5.25) 화엄경총설 총무원장스님	3회 3재 11월 12일(음 09. 26) 심행품 보각스님	5회 6재 03월 11일(음 01. 25) 입법계품 월파스님
1회 1재 07월 23일(음 06. 02) 세간정안품 월운스님	3회 4재 11월 19일(음 10. 03) 심무인장품 지하스님	5회 49재 03월 18일(음 02. 01) 지장경총설 묘허스님
1회 2재 07월 30일(음 06. 09) 노사나품 종허스님	3회 5재 11월 26일(음 10. 10) 여래승도출현공품 도연스님	6회 1재 03월 25일(음 02. 08) 도리천공신통품 원종스님
1회 3재 08월 06일(음 06. 16) 여래명호품 법산스님	3회 6재 12월 03일(음 10. 17) 도출현공보살찬탈품 해인스님	6회 2재 04월 01일(음 02. 15) 분신회품 현고스님
1회 4재 08월 13일(음 06. 23) 사제품 종진스님	3회 49재 12월 10일(음 10. 24) 심회향품 무비스님	6회 3재 04월 08일(음 02. 22) 관중생염어품 범민스님
1회 5재 08월 20일(음 07. 01) 여래광명각품 총무원장스님	4회 1재 12월 17일(음 11. 02) 심지품 안도스님	6회 4재 04월 15일(음 03. 01) 염부중생염어품 총무원장스님
1회 6재 08월 27일(음 07. 08) 보살명년품 무관스님	4회 2재 12월 24일(음 11. 09) 심명품 해남스님	6회 5재 04월 22일(음 03. 08) 지옥명호품 인묵스님
1회 49재 09월 03일(음 07. 15) 정행품 현각스님	4회 3재 12월 31일(음 11. 16) 심인품 무진장스님	6회 6재 04월 29일(음 03. 15) 여래천품 상우스님
2회 1재 09월 10일(음 07. 22) 현수보살품 도문스님	4회 4재 01월 07일(음 11. 23) 심왕보살문어승자품 자광스님	6회 49재 05월 06일(음 03. 22) 이인종어품 해창스님
2회 2재 09월 17일(음 07. 29) 불승수미정품 해자스님	4회 5재 01월 14일(음 11. 30) 수명품 인환스님	7회 1재 05월 13일(음 03. 29) 염라왕중천탄품 환관스님
2회 3재 09월 24일(음 08. 06) 보살공묘수생살계품 정법스님	4회 6재 01월 21일(음 12. 07) 보살주저품 지성스님	7회 2재 05월 20일(음 04. 05) 청불명호품 지선스님
2회 4재 10월 01일(음 08. 13) 보살심주품 현해스님	4회 49재 01월 28일(음 12. 11) 불부사의법품 시용스님	7회 3재 05월 27일(음 04. 12) 교량보시공덕품 해충스님
2회 5재 10월 08일(음 08. 20) 범행품 선타스님	5회 1재 02월 04일(음 12. 21) 여래상행품 태웅스님	7회 4재 06월 03일(음 04. 19) 견신어의품 응산스님
2회 6재 10월 15일(음 08. 27) 초발심공덕품 근일스님	5회 2재 02월 11일(음 12. 28) 불소심광명공덕품 흥교스님	7회 5재 06월 10일(음 04. 26) 권문어의품 세민스님
2회 49재 10월 22일(음 09. 05) 명법품 정휴스님	5회 3재 02월 18일(음 01. 04) 보현보살행품 향적스님	7회 6재 06월 17일(음 05. 03) 속루인천품 청화스님
3회 1재 10월 29일(음 09. 12) 불승어미전공자재품 정무스님	5회 4재 02월 25일(음 01. 11) 여래성기품 영조스님	7회 49재 06월 24일(음 05. 10) 회향법문 총무원장스님
3회 2재 11월 05일(음 09. 19) 어미전공보살살계품 범등스님	5회 5재 03월 04일(음 01. 18) 이세간품 도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세민 합장